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September 30, 2022 Vol. 832

## 격려·지지·성원 ‘브리지’로 하나된 교회

본지 주관 ‘위 브릿지 컨퍼런스’  
 감동과 호평 이어져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서로 연합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 목회자로 부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임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예배 회복과 선교적 삶으로의 결단”이라는 주제로 토렌스 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진행된 “위 브릿지 컨퍼런스”(We Bridge Conference 이하 브릿지)가 참석자들의 호평이 이어지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원하트 미니스트리(대표 피터 박 목사)가 기획하고 본지(대표 이인규 목사)와 미주 CBS(대표 한기형 목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남가주 지역교회를 서로 연결해, 남가주 지역 교회의 예배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브리지’는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시작됐으며, 교회간 협력을 도모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가 교회는 현재 외부의 재정 후원 없



위브릿지(We Bridge)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함께 힘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기독일보

이 사역하는 교회로 설립 10년 미만, 예배 인원 30명 이하, 목회자 연령 60세 미만의 50개 교회를 대상으로 했다. 팬데믹 중에도 대면예배를 이어가며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은 남가주 지역 교회들과 결연돼, 내년 1월부터 매월 500달러씩 3년간 후원 받으며 서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게 된다. 또 매년 혹은 절기별 정기 목회자 및 사모 컨퍼런스를 갖고 서로의 목회 사역을 돌보게 된다.

컨퍼런스 주 강사로는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가 나서 “나에게는 꿈이 있다”, “부

흥의 삼대 원칙”이란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 김우준 목사, 오명찬 목사(웨스트힐장교회),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예배 설교를 전했다.

권준 목사는 교회의 영향력은 교인 수나 건물크기에 있지 않고,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된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하나님의 꿈은 교회 성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킹덤 드림’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의 확장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것을 주문했다.

또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이상훈 총장(미성대), 김섭리 목사(플로리다한빛교회), 정한나 사모(가정사역자), 최은희 강사(마음공간 대표), 존최 목사(달라스 DBU 예배학 학과장)가 현대 목회에 필요한 특강을 전했다.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가 후배 목회자들을 위한 애정어린 조언을 아낌없이 전했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 미국인 66% “교회 밖에서 예배드려도 무관”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 성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회 예배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남침례교 교단지인 뱍티스트프레스(BP)에 따르면, 라이프웨이는 2년마다 실시하는 신학 현황(State of Theology) 연구 조사를 올해 1월 5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20년 3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될 무렵 미국인의 58%는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예

배하는 것이 정기적인 교회 출석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6%는 강하게 동의했다. 2022년에는 무려 66%가 “지역 교회와 별개로 예배하는 것이 한 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만큼 유효하다”고 믿었으며, 35%는 강력히 찬성했다.

또한 미국인의 과반수(56%)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역 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5명 중 2명 미만(36%)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추적 조사에 따르면, 미

국 개신교 교회는 2021년 여름과 2022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교회를 개방했음에도, 올해 초 교회 출석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교회는 거의 없었다.

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미국 성인의 66%는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며 실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지만, 51%는 “하나님은 배우며 다양한 상황에 적응한다”고 답했다.

미국인 10명 중 거의 7명(67%)은 하나님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모든 종

교의 예배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비율(71%)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 안에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답했다.

이처럼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절반 이상(53%)은 예수가 “위대한 선생이셨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답했다. 반면 55%는 “예수가 처음이자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5명 중 3명(59%)은 “성령은 능력이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말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이러한 신학적 신념을 감안할 때, 미국인의 60%는 종교적 신념을 ‘객관적인 진실’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2.99%이자가능  
**2.99%**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60 Months

**NEW 2022 HYUNDAI IONIQ5 SE**  
**NEW 2022 HYUNDAI TUCSON SE**  
**NEW 2022 HYUNDAI SANTA FE SE**  
**NEW 2022 HYUNDAI SANTA CRUZ S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주최 “제14회 사랑의 찬양제” 성황

## 찬양제로 이웃사랑 실천, 선교사 및 신학생 후원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이영수 장로)가 주최한 제14회 사랑의 찬양제가 지난 25일, 나성한미교회(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에서 열렸다.

이번 찬양제는 남가주 장로 성가단 중창단을 비롯해 동부사랑의교회, 오렌지 미션 콰이어, CTS 미션 콰이어, 보블리스 선교합창단, 오렌지카운티 콰이어, 유니온교회, LA Soli Deo, 로스앤젤레스 체임버 콰이어, 남가주장로성가단등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합창단과 교회 성가대 총 10개 팀이 2곡씩 모두 20곡을 연주하며 깊어가는 가을 밤을 찬양으로 놓았다.

찬양제는 세계적인 불경기와 펜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선교사들과 신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개최돼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됐다.

이영수 장로는 “이날 찬양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특별히 찬양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과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앞으로 교계를 이끌어 나갈 신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찬양제는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남가주장로성가단,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대한민국가조찬기도회 LA지회, 크리스찬비전, 미주복음방송, 기독교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가 후원했다. 김동욱 기자



제14차 사랑의 찬양제에서 연주하는 남가주 장로성가단

##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및 한국 전쟁 기념관’ 건립

오는 10월 1일(토) 오전 11시 현판식 진행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이 엘에이 근교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및 한국 전쟁 기념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을 건립한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은 지난 달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재한 대지 약 27만 스퀘어피트, 건물 6만 4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쇼핑센터를 545만 달러에 구입했다. 이번에 건립되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및 한국 전쟁 기념관은 이우호 목사가 본인 소유 창고 건물을 팔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은 총 건물의 절반인 3만 4천 스퀘어피트의 공간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및 한국 전쟁 기념관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우호 목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세우고, 미주 한인들이 미국에 거주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자유민주주의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해 오늘의 국력을 갖게 한 이승만 박사의 위대함과 교훈이 기념관을 통해 후손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어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이승만 박사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사상을 후대들에게 전하는 기념관을 남기게 되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및 한국전쟁기념관 현판식은 오는 10월 1일(토)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김동욱 기자 문의) 754-366-9923

## 한인가정상담소 기금 마련 행사에 약 19만 달러 모금



캘리포니아사이언스센터에서 진행된 한인가정상담소 제39회 연례 기금 모금 행사

한인가정상담소(KFAM·소장 캐서린 염)가 지난 22일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California Science Center)에서 개최한 제39회 연례 기금모금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올해 기금모금 행사명은 ‘Close to Home’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한인들을 위한 또 하나의 집이 되겠다는 취지로 열렸다. 이날 기

부금 후원과 현장기부를 통해 약 19만 달러가 모금되어 한인가정상담소를 위한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실감케 했다.

한편 설립 39주년을 맞아 ‘복창동 순두부’(BCD Tofu House) 창업자이자 한인가정상담소 이사를 역임하며 오랜 기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후원한 고(故) 이희숙 대

표에게 레거시상(Legacy Awardee)을 수여하였다. 또한 AAPI 앰배서더상(AAPI Ambassador Awardee)은 미나리 출연배우인 에스더 문 우 영화배우가 시상하였다.

에스더 문 우 배우는 한인가정상담소 위탁가정 및 심리상담부서에 과거 재임하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캐서린 염 소장은 “후원자 분들을 모시고,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한인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보내주시는 사랑과 후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졌는지 보여드리는 자리였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과 각박한 이민사회에서 희망을 이어가는 한인 가정을 돕는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올해 연례 기금모금 행사는 복창동 순두부, 한미은행, 리차드호프만 변호사, 유진 김 성형외과, 터보 에어, 수잔 정 박사, 슈퍼리어 그로서리 외 여러 스폰서가 후원했다.

김동욱 기자

[1면 “격려·지지·성원 ‘브릿지’ 로...” 이어]

###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목회자들을 위한 프로필 촬영과 헤어컷이 무료로 제공됐으며,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이 일일 서버로 나서 이웃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또한 강의 후 이어진 테이블별 토론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사정을 나누고 목회 동역자를 만날 수 있

어 좋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본지 대표 이인규 사장은 “브릿지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남가주 지역의 한인 교회들이 개교회를 넘어 서로를 돕고 섬기고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컨퍼런스를 통해 교회가 서로 이어지고 선한 동역의 모델을 형성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미주 CBS 한기형 회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미주의 많은 한인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저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시기에 위 브릿지 사역을 통해 많은 한인교회들이 경쟁보다는 상생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원하트미니스트리 대표 피터 박 목사는 “남가주 지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서로의 교회와 목회를 돌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특별히 지역 교회와 연합과 동역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남가주 지역 교회와 목회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브릿지 컨퍼런스는 남가주 지역 교회와 한국 해민병원, PRO-Z USA, DB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미성대학교가 후원했다.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2023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미국의 영적 · 도덕적 회복 위해 남가주 한인 일어나야”

2022 다민족 연합기도회  
10월 2일(주일) 오후 4시  
“회개 · 회복 · 부흥,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미국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한 2022 다민족연합기도회(대표 대회장 한기홍 목사)가 오는 10월 2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에서 열린다.

이날 다민족연합기도회는 한인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히스패닉, 백인, 흑인, 인도, 베트남, 일본, 우크라이나 등 타민족 교회 성도들이 대거 참석해 미국이 당면한 영적 위기와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는 미국의 영적, 도덕적 위기를 강조하면서 남가주 한인들의 기도회 참여를 촉구했다.

강순영 목사는 “우리 자녀들이 공립학교의 잘못된 성교육과 마약을 비롯해 무신론적



애너하임 엔젤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2014년 다민족연합기도대회 ©기독일보

이고 사회주의적 이념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며 “동성애지지, 낙태지지, 대마초 판매 허용에 관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는 실정을 보면서 가슴을 찢는 통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적 위기에 뜻있는 성도들의 회개와 간구를 통해 도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새롭게 갱신

된 경우가 많다”며 “남가주 한인들이 일어나 미국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다민족연합기도대회는 2011년에 파사데나에 소재한 로즈 볼(ROSE BOWL)에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사모하는 중보기도단체 250개 팀이 연합해 시작됐다. 대회 당일에는 2만여 명의 다민족이 참여했으며 한인들도 미주성시화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대거 참여했다.

2015년부터는 한기홍 목사와 강순영 목사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2015-2016년에는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기도회를 개최했고 2017년부터는 은혜한인교회에서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다민족연합기도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시되는 대규모 기도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미주복음방송과 CTS America 외 다국적 TV가 생중계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 바리스타 된 성인 발달장애인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Seesaw Communities 창립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상장을 받은 직원들과 봉사자들

### Seesaw Communities 창립 1주년 기념 행사 성료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인 발달 장애인 단체 'Seesaw Communities'(대표 샘 윤 소장 www.thesc.us)가 지난 17일 웨스트 코비나에 소재한 Seesaw 카페에서 창립 1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200여명의 발달 장애인 가족과 Seesaw communities 후원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기념 공연과 시상 등의 순서가 진행됐으며, 바리스타 교육을 마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커피를 제조해 참석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 행사에서는 조쉬 뉴먼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필립 첸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일한 비장애인 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1년 동안 봉사한 4 명의 비장애인 학생들에게는 대통령 봉사상이 수여됐다.

샘 윤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우려와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적절한 훈련을 받으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발달장애인이 많은데, 한인사회에서 인턴십 고용과 후원으로 성인발달 장애인들을 향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Seesaw Communities 앞으로 Seesaw 카페 2호점 개점과 제빵 기술 교육, 온라인 스토어 교육 등 인턴 프로그램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 세리토스선교교회, 정성욱 교수 초청 “밝고 행복한 종말론” 세미나

세리토스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 12413 195th St, Cerritos, CA 90703)가 오는 10월 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정성욱 교수(덴버 신학대학원 조직신학)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성욱 교수는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이단 사이비가 주장하는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균형잡힌 종말론을 소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종말론 전반에 대해 강의는 비롯해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세대주의적 관점을 소개하며 문제점과 오류 역시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정 교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종말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며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정한 교회가 행복한 기대감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돕는 것이 종말론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밝고 행복한 종말론의 틀을 잡는데 반드시 이해해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종말론을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 제5회 가을 정기회 및 목사 안수식 개최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노회장 김정호 목사)가 지난 20일, 하나교회(노명구 목사 시무)에서 제5회 가을 정기회 및 목사 안수식을 가졌다.

이날 설교는 부노회장 김성권 목사(필랜 성은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노회”(마 28:18-2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목사 안수식에서는 노혜란 씨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산하에 페트라대학교가 귀한 영적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B.Th, M.Div, D.Min 과정이 있으며 유학비자(F-1)를 발급한다. 수시입학 및 편입 가능하다.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 제5회 가을 정기회

문의: 김경식 목사 213-909-3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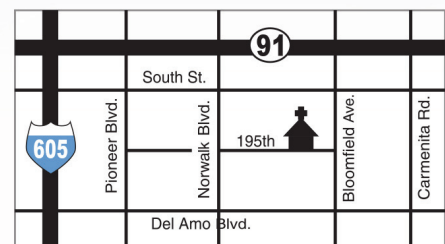
https://cmchome.org

# 밝고 행복한 종말론

일시: 10월 7,8,9일

장소: 세리토스선교교회 본당

- 금요일 저녁 7:30 ..... 디도서 2:11-14 밝고 행복한 종말론
- 토요일 새벽 6:00 ..... 계1:1-3 요한계시록 강해 1
- 토요일 저녁 6:00 ..... 계1:1-3 요한계시록 강해 2
- 주일 1부 아침 7:45... 계1:1-3 요한계시록 강해 3
- 주일 2부 아침 11:00 ... 계1:1-3 요한계시록 강해 4



### 강사: 정성욱 박사

- 덴버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Ph.D (조직신학)
- 제임스 패커와 존 스토틀을 잇는 세계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엘리스터 맥그래스의 제자
- 저서 중 '스피드조직신학'은 현재 갓피플들 조직신학 부문에서 오랫동안 1위를 달리고 있음

**세리토스선교교회**  
CERRITOS MISSION CHURCH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562)402 2919

# 위 브릿지 컨퍼런스 ‘예배 회복과 선교적 삶의 결단’

###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일으켜 세운다

미주 기독교일보와 미주 CBS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위 브릿지(We Bridge) 컨퍼런스가 지난 26일 토렌스 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시작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예배 회복과 선교적 삶의 결단’이라는 주제로 28일까지 시애틀형제교회 권준 목사가 주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 브릿지 사역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교회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역의 주요 내용은 현재 팬데믹 중에도 대면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어려운 교회를 대상으로 남가주 지역의 큰 교회들과 결연을 진행해 내년 1월부터 매월 500불씩 3년간 정기후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목회자 및 사모를 위한 위 브릿지 컨퍼런스를 매년 혹은 정기별로 진행해 작은교회들의 목회사역을 돕는다.

컨퍼런스 첫 날인 26일은 가장 먼저 박성호 목사의 사회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모두 남가주에 있는 목회자지만 대체로 첫 만남인 경우들이 많았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조별토론도 진행하면서 서로 목회에 대한 단상을 나누기도 했다.

한국 씨미디어그룹 소일권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해 서로를 돕고 일으켜 세우는 위 브릿지 컨퍼런스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이 미주지역의 아름다운 행사가 한국교회에 큰 울림을 주기 한다”면서 “한국에도 수많은 미자립교회들이 있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과 상심을 경험했기에 기독교일보를 비롯한 씨미디어그룹은 위 브릿지 사역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이곳 미주지역을 넘어서 한국에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 CBS 한기형 회장은 인사말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미주의 많은 한인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저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시기에 위 브릿지 사역을 통해 많은 한인교회들이 경쟁보다는 상생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김경진 목사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엡1:20-2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회를 하다보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목회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이 들 때까지 있다. 특히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더욱 커진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주변적인 것을 보지 말고 교회의 본질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도 바울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자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뤄진 몸”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목사는 결핍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교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현재 세상은 팬데믹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럽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됐지만 이러한 세상의 불안과 공포, 분쟁이나 다툼이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결국 교회로 인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목사는 목회에 있어 주의할 부분들에 대해서 “때론 알곡인줄 알았는데 가라지고, 가라지인줄 알았는데 알곡일 때가 있다. 또 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틀거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는다”면서 “또 목회자는 성공의 유희를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목사는 초대교회 정성으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살아가던 조지아 코이노니아 농장에 대해 언급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동등한 대우를 받던 농장이 크게 불에 탄 적이 있었다. 당시 기자가 와서 농장 참사자였던 클레런스 조던 박사에게 12년간 일궈 놓은 농장이 폐허가 된 것에 대한 심정이 어떤지 물었는데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실패한 인생이 됐다는 기자의 시각과 달리 조던 박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성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답했다”면서 “만일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달란트를 다 잃어버렸을 때 과연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하실지 생각해 보라. 목회에 있어 양을 돌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세상의 소망인 것을 알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본질을 붙드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권준 목사는 첫날 저녁집회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다”(마9:17)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비전을 잃고 고령화돼 있었던 시애틀형제교회가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역동적인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교회로 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소개하면서 목회자가 가져야 할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권 목사는 윌로우크릭교회에서 받았던 감동을 성도들에게 심어줬던 과정을 소개하면서 “다른 교회의 좋은 부분들을 도입하고자 할 때 먼저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잘되는 교회들의 프로그램들을 단기적으로만 경험하고 교회에 선불리 도입하려다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다”고 조언했다.

권 목사에 따르면 자신이 처음 부임한 2000년 당시의 시애틀형제교회는 젊은 사람은 거의 없는대부분이 고령층인 교회였고 주차장도 구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권 목사는 “윌로우크릭교회에서 제가



위 브릿지(We Bridge) 컨퍼런스가 26일부터 28일까지 토렌스 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진행됐다. ©김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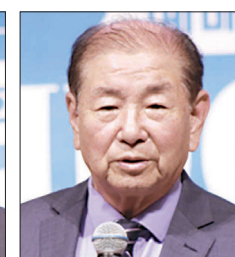
주강사 권준 목사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김경진 목사



한국 씨미디어그룹 소일권 대표



미주 CBS 한기형 목사

봤던 것은 당시 그들은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눈물이 있었다. 그들이 진심으로 불신자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형제교회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권 목사는 당시 형제교회 성도 5명과 함께 윌로우크릭교회에서 진행되는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그 이후 교회가 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컨퍼런스 이후 돌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뭉치 저에게 나뉘는데 이제야 담임목사의 비전을 알겠다고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된다고 저에게 말했다. 또 하나는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이 되어 다른 교회를 섬기자는 비전이 생긴 것이었다”면서 “교회에 동기부여가 되면 전 교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5명에게 비전이 심어지고 이들이 교인들에게 비전을 전해주니 59명이 움직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후 그렇게 고령화돼 있던 기성교회인 형제교회가 전도훈련과 제자양육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면서 “교회는 변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많은 교회가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는 끊임없이 부활을 향해서 가야 하고 끊임없이 복음전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목사는 또 최근 노방전도 당시 겪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모처럼 시작한 노방전도에서 타교회 전도팀을 만났을 때 형제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니 ‘그만큼 부흥했으면 됐지 뭐가 아쉬워서 또 나오느냐’는 식의 우스갯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목사는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우리는 교회 성장과 확장을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우주적 교회의 성장을 바라보며 전도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후 조별 토론시간을 통해 첫 날 말씀과 교제를 통한 은혜를 나누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3일간의 컨퍼런스에서 찬양 인도 및 모든 예배 및 강의는 남가주의 예배사역단체인 원하트 미니스트리(Oneheart Ministry)가 기획했다. 또 위 브릿지 사역에는 위 브릿지 기금을 조성한 남가주의 교회들과 한국 해민병원, PRO-Z USA, DB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미성대학교가 후원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국제이비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외지역의 고문 변호사  
(전)재미법령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 앞치마 맨 원로, 서빙하는 주강사...훈훈함 더했다

### 컨퍼런스 이튿날 유익한 강의와 다채로운 이벤트들 이어져

위 브릿지 컨퍼런스 이튿날인 27일 저녁 매우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LA교계의 원로인 송정명 목사가 웨이터복을 입고 직접 후배 목회자들에게 음식을 서빙한 것이다. 앞서 진행된 '선배가 후배에게'라는 토크 콘서트 순서를 통해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했던 그가 갑자기 웨이터로 변하는 깜짝 이벤트를 보여주면서 후배들에게 또 한번의 기쁨을 줬다.

서빙에 나선 것은 송정명 목사 뿐만 아니었다. 이번 컨퍼런스 주 강사인 권준 목사는 물론이고 고한승 목사, 김경진 목사, 이상명 총장 등 남가주 지역 주요 교회 및 신학대학 총장들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들을 날랐다. 서빙하는 이들도 서빙을 받는 목회자들과 사모들도 미소가 가득한 훈훈한 장면이었다. 웨이터 복장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는 사회자의 질문은 물음에 참석자들은 권준 목사와 송정명 목사를 거침없이 꼽으며 한바탕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앞서 진행됐던 토크 콘서트에서 송정명 목



송정명 목사가 위 브릿지 컨퍼런스 참석자들에게 직접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뒤로 고한승 목사가 보인다. ©기독교일보

사는 목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후배들의 질문에 '설교'라고 답했다. 송 목사는 "무엇보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야 하는 책무가 가장 크다고 본다"면서 "저 또한 40년 목회를 돌아볼 때 설교를 가장 비중있게 여기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밝혔다. 또 송 목사는 목회에 있어 균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목회활동을 하면서도 사회 참여 및 지역 섬김 활동을 꾸준히 해나갔던 경험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참석자들을 위한 미니콘서트도 열렸다. 이

번 행사에서 찬양 및 예배를 모두 맡아서 기획하고 있는 원 하트 미니스트리에 소속된 이실라 찬양 사역자는 '나와 함께 가자'는 주제의 콘서트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함께 선물했다.

점심시간에는 목회자와 사모를 위한 무료 헤어컷 코너도 운영됐다. 나성순복음교회 전도왕으로 알려진 국가대표 미용사 김인태 장로가 27일과 28일 이튿날 낮시간을 이용해 참가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한국에서 1986년 아시아 미용선수권대회 우승, 미용 국가대표 트레이너 200여회 대회 심사위원 등을 맡았고 미국에서도 유명 영화배우와 영화감독의 머리를 직접 손질한 그이지만 자신의 달란트로 목회자와 사모들을 섬기는 이번 기간이 더 보람되고 기쁘다고 말했다.

컨퍼런스 이튿날인 27일에는 다양한 강의가 이어졌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은 △바벨론에 갇힌 현대 교회의 네 가지 위기와 회복, 김섭리 목사는 △선교적 예배, 총제적 회복을 위한 여정, 존 최 목사는 △가인의 예배가 오늘날도 드러지고 있나?며, 최은희 강사는 △부부 친밀감, 정한나 사모는 △식탁 하부르타를 주제로 풍성하고 알찬 강의를 전했다.

김대원 기자

## “교회 부흥의 삼대 원칙, 요한복음 13장 34-35절에서 발견”

### 시애틀형제교회 권준 목사 위브릿지 컨퍼런스에서 소개

미주기독교일보(대표 이인규 사장)와 미주 CBS(대표 한기형 목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위브릿지(We Bridge) 컨퍼런스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토렌스 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진행된 가운데, 주 강사로 나선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는 “부흥의 삼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며 부흥을 향한 길을 제시했다.

요한복음 13장 34-35절(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을 본문으로 권준 목사가 제시한 교회 부흥의 삼대 원칙은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서로를 향한 열린 교제 공동체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로 '예배'와 '교제' 그리고 '전도'에서 교회 부흥의 해답을 찾고 있다.

이날 권 목사는 부흥의 삼대 원칙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예배'와 '교제', '전도'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친교가 아무리 아름답고 풍성하더라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의 모임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예배를 통해 한 영혼을 위해 목숨까지 쏟아 붓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비로소 세상이 교회에서 비추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교회로 향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권 목사는 하나님의 꿈이 교회 성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킹덤드림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 목사는 “예배는 교회의 심장으로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선포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다해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된다”며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예배가 '형식화' 또는 '습관화'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회개의 눈물, 회복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위해 끊임 없이 변화해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예배의 부흥 없이는 교회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고, 친교와 전도로는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없다”며 “인간의 방식이 아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위브릿지 컨퍼런스에서 강의하는 시애틀형제교회 권준 목사 ©기독교일보

권 목사는 “교회의 영향력은 교인 수나 건물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

나 서로 사랑하는지에 달려있다”며 “교회 모든 구성원이 하나됨을 이룰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교회의 능력은 하나됨에 있다”며 “하나님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권 목사는 설교를 마무리하며 “교회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전도의 목적 또한 개교회 성장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두어야 한다”며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적 성공을 향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킹덤 드림을 꿈꾸며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 Korean Doctor of Ministry

---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옥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mailto: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 빌리 그레함과 영국 여왕의 신앙적 우정 ‘재조명’

## 그렉 로리, 그레함 목사 “60년 우정...여왕의 신앙에 지대한 공헌”

미국 캘리포니아 하비스트크리스천펠로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의 그렉 로리 목사가 고(故) 빌리 그레함 목사와 지난 8일 타계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신앙적 동지애에 대해 소개했다.

그렉 로리 목사는 21일 크리스천포스트(CP)에 기고한 칼럼에서 “여왕 폐하는 영국과 그 너머에 도덕적 등대였다. 이것은 그녀가 공개적으로 자주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고 했다.

이어 “봉사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일생 동안 수백만 명과 접촉하게 했지만, 관계를 키워갈 기회는 거의 없었다. 이 수준의 리더의 위치는 가깝거나 친한 친구가 거의 필요치 않다”며 “하지만 빌리 그레함이 그들 중 한 명이 되었음에 확실하다”고 밝혔다.

로리 목사는 “그들의 우정은 1955년에 시작되었고, 영국에서 기독교의 미래를 만든, 그레함의 역사적이며 큰 승리를 거둔 십자군 운동이 있는 지 1년 후였다. 영국에서 그의 설교는 영국 시민과 그들의 군주에게 부흥과 같은 영향을 끼쳤다”고 회고했다.

1954년 십자군 원정은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그레함 목사를 개인적으로 초청한 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이후 그레함 목사가

여왕과의 첫 만남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빌리와 여왕은 60년에 걸쳐 우정을 누렸고, 그는 여왕의 신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의외의 동지애였다”며 “그레함은 비밀리에 프로 야구 선수가 되기를 바랐던 낙농가의 아들이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0세기와 21세기에 늘 그녀 자체만으로 유명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했다.

로리는 빌리 그레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결코 스타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 그는 항상 대화를 나에게 돌리고, 타인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고 회고했다. 또 여왕은 “높은 직함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성품을 지녔었다. 겸약함과 우아함, 진정한 겸손과 예리한 유머 감각을 가졌다”고 했다.

로리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의 말을 인용, “부친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기 드문 겸손과 품성을 지닌 여성’이라고 말했다. 또 여왕 폐하의 개인적인 신앙이 그녀의 삶과 통치에 있어 닿을 내린 원동력이라고 하셨다”라며 “여왕은 수십 년간 영국 국교회를 이끄는 일을 도왔고, 자랑스럽게도 ‘신앙의 수호자’라는 직함을 지닌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왕의 공식적인 직위를 감안할 때,



1989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서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 ©빌리그레함전도협회(BGEEA) 제공

어떤 종교나 목회자를 편애할 수는 없었지만 때때로 힘과 격려를 얻기 위해 빌리에게 의지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녀가 빌리 그레함의 동행과 조언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영국은 빌리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였고, 여왕을 자주 방문할 기회를 제공했다. 빌리와 루스 그레함은 설교 약속을 잡기 위해 윈저와 샌드링엄에서 최소 12번 이상 여왕을 만났다. 여왕은 심지어 피드백을 받고자 연례 크리스마스 방송의 연설 연습을

그에게 들어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그 방문은 그들의 우정과 동료애를 더욱 깊게 했다. 그레함은 여왕과 그녀의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로 서약했다”며 “그레함은 점차 그녀의 신앙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덧붙였다.

로리는 끝으로 “둘의 우정은 상호 존중과 존경의 우정이었다. 그들은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수백만 명의 마음에서 존경받으며 두 사람을 인도한 신앙을 공유했다”고 결론지었다. 김유진 기자

## “美 기독교인들, 정치에 집착하게 돼” 마이클 브라운 경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일사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혼동하는가?”

이 질문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박사가 출간한 신간 ‘교회가 받는 정치적 유혹: 많은 미국 기독교인들이 복음과 정치를 혼동하는가?’(The Political Seduction of the Church: How Millions of American Christians have Confused Politics with the Gospel)의 초점이다.

브라운 박사는 2016년과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으며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는 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독자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하고 정치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지난 선거에서 우리는 정치에 집착하게 됐다”라며 “우리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브라운 박사는 2024년 대선이 앞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가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는 열쇠인 것처럼 복음을 선거와 결합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메시아니 유대인이기도 한 브라운 박사는 뉴욕대학교에서 근동 언어 및 문학을 전공했으며 여러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25권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전국 라디오 쇼인 ‘Line of Fire’를 진행하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브라운 박사는 신간 ‘정치적 유혹’을 통해 기독교 민족주의의 정의와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전국적 논쟁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어난 정치와 신앙의 결혼을 평가하는 데 신중하고 측정된 접근 방식을 취하



마이클 브라운 박사 ©크리스천포스트 제공

‘간강하지 못한 버전’도 있다. 브라운 박사에 의하면 미국의 운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고 기독교 정체성을 미국주의와 병합하는 버전이다.

그러나 브라운 박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독교 민족주의의 ‘매우 위험한’ 버전이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전쟁에서 영국의 폭정에 맞서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정부에 대하여 무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라운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것이 내가 가장 강력한 용어로 경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운동이나 정치인을 우선시하기보다 먼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삶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면 나라가 혼란에서 회복될 것”이라며 “교회가 교회가 된다면 유희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 美 남침례회, 동성애 지지 선언한 두 교회 제명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SBC)가 동성애 지지 입장을 표명한 2개 교회를 교단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제명된 교회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 있는 칼리지파크침례교회(College Park Baptist Church in Greensboro)와 뉴저지주 프랭클린빌에 위치한 어메이징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Amazing Grace Community Church)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남침례회 집행위원회는 지난 20일 “동성애 행위에 대한 공개 확인과 승인 및 지지”를 밝힌 두 교회에 대한 자격심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제명을 결정했다. 집행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두 교회가 교단이 차별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 등 ‘협력 부족’을 꼽았다.

이에 칼리지파크침례교회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환영합니다, LGBTQIA를 긍정하는 침례교회”라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이 교회는 “우리 LGBTQ 친화적인 교회에는 동성애자/레즈비언 목회자, 집사, 직원 외에도 많은 LGBTQ 교인들이 있다”며 “우리는 동성결혼식을 거행하며, 타 교회에서 성경에 의해 못매를 맞은 많은 이들을 환영한다”고 공지했다.

한편 남침례회의 공식 입장인 ‘2000년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Baptist Faith & Message 2000)’는 “기독교인들이 간통, 동성애, 음란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에 반대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김진영 기자

## 美 기독교 단체, 11월 중간선거 유권자 동원에 4천만 달러 투자



©Unsplash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저명한 복음주의 비영리단체가 약 4천만 달러 이상을 들여 기독교인 유권자 동원에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보수적 성향의 지역 풀뿌리 단체인 신앙과자유연맹(Faith & Freedom Coalition) 티모시 헤드(Timothy Head) 사무총장은 “미 전역의 기독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대략 3,600~4,200만 달러(500~585억 원)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美 기독교 단체,

### 11월 중간선거 유권자 동원에 4천만 달러 투자

이 단체는 메일, 문자 메시지, 가장 방문 등을 통해 미리 선정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헤드 사무총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4개의 주에서 각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실제로 24개 주에서 820만 가구를 직접 만났다”고 했다.

11월 8일 있을 중간선거에서, 2년 남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 어느 당이 상·하원을 차지할 지 결정된다. 하원은 435명, 상원은 35명, 또한 주지사 36명과 주의원 80% 이상도 선출된다.

신앙과자유연맹은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아이오와, 텍사스, 콜로라도, 애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폴로라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파이브씨티 에이트 디럭스 모델’(FiveThirtyEight Deluxe Model)은 “설문조사, 모금, 이전 투표 형태,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른 결과,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할 확률은 72%,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할 확률은 71%”라고 예상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또는 상원이나 하원을 차지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의제를 법률로 제정할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기독교인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초당파 기독교 단체인 마이페이스보츠(My Faith Votes) 제이슨 예이츠(Jason Yates) CEO는 “이번 선거에서 35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특히 기독교인들이 동참을 독려하고 있는 9개 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예이츠 CEO는 “이 주들은 신앙과자유연맹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와 크게 겹치고 있다. 마이페이스보츠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네바다,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및 위스콘신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독교인이 약 1,500만 명 정도 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교인들이 정치적 과정에 연루되선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독교인들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적자 30조 달러 이상, 낙태 및 이혼율 증가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혜진 기자

# 가/을/맞/이 기획전

## 셀리온과 유한건강생활의 부스터 세트 무료 선물 행사

더 높은 복합효과를 위해 함께하면 더 좋은 세트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탈모 예방과 발모 촉진은 모발 성장 인자가 정답입니다



헤어성장인자 함유 헤어 셀 스피클 앰플 구입시

+



디톡스화잉 + 토닉 + 헤어 셀 샴푸 + 컨디셔너 4종 플 세트

주름없는 탱탱한 피부로 가꾸는 E2F4



특허 등록된 콜라겐 섬유아 세포 성장인자 함유 E2F4 앰플 구입시



E2F4 세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유정란 배반엽 애그 스템 셀 세트



BP 앰플 구입시

+



BP 세럼

젊고 활기찬 건강관리는 믿을 수 있는 유한 건강생활 제품으로



유한양행 전용농장만의 최상급 녹용과 홍삼으로만 만든 전 녹용홍삼 스틱 구입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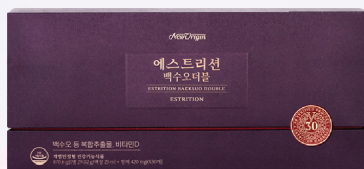
전홍삼 스틱

FREE



전홍삼 스틱

갱년기와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의 건강관리



에스트리션 백수오 더블 구입시

FREE

관절과 피부 건강관리 백수오 듀얼 콜라겐



피로한 눈, 건조한 눈, 노화된 눈 건강을 위한 복합세트

간이 좋아야 눈도 건강해진다



눈 건강 루테인 2개 구입시

+



간 건강 밀크시슬 2개

허리와 근육은 물론 뼈 건강까지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 허리를 깨끗하게 세워주는 코어 프로틴 스틱 2개 구입시

+



어골 칼슘

갱년기와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증상 복합관리 에스트리션



에스트리션 백수오 퓨어

+

여성들 요로와 질 건강에 이노플로라 크린베리

FREE



건강하고 아름답게 셀리온

L.A. 점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13) 738-1188

부에나팍점 소스몰 1층 (714) 523-8100

얼바인점 시온마켓 정문 왼편 (949) 800-8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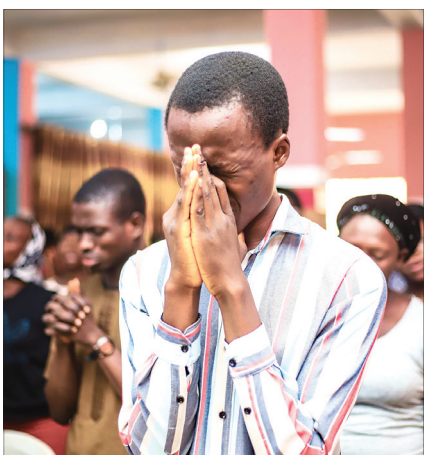




### 나이지리아 베누에 주 풀라니 목동, 기독교인 25명 살해

나이지리아 남부의 베누에 주에서 무슬림 풀라니 목동들의 기습 공격으로 이 달에만 기독교인 25명이 살해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모닝스타 뉴스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목동들은 9일 오후 4시경 구마 카운티의 기독교인 거주지인 체응반 마을을 공격해 주민 3명을 살해했다. 마을 주민 마이클 주홀의 제보에 따르면, 총으로 중무장한 약 24명의 풀라니 목동이 마을을 기습했다.



또 그는 최근 3주 동안 무슬림 목동들이 구마 카운티의 체 뇨그베라, 우멜라, 요고보, 우코홀 마을을 공격해 기독교인 13명을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나이지리아 오고모보쇼에 위치한 트루워십교회에서 열린 예배 도중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 ©Gracious Adebayo/ Unsplash.com

마이크 우바 구마 지방정부의장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우코홀과 요고보의 두 마을에서 기독교인 13명 중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우바는 모닝스타 뉴스에 "목동들은 9일과 10일 양일간 계속 공격했고 기독교인들의 집을 불태워 파괴했다"며 "일주일 전, 구마 지방 정부 구역(LGA)에서 목동들에 의한 별도의 공격으로 기독교인 9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베누에 주 경찰 사령부의 캐서린 아네 네 대변인은 "구마의 일부 공동체와 다른 2개 지방 정부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이번 공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나이지리아 중부의 플래토주에서 전통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복면을 쓴 채, 주일 예배 중이던 인근 교회를 습격해 교인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카운티에서 기독교인 9명이 사망했고, 9월 1일 우멜라 마을에서 6명, 3일 체 뇨그베라 마을에서 3명의 기독교인이 풀라니 목동에 의해 살해됐다.

베누에 주 비상관리국(SEMA) 사무총장인 에마누엘 시오르는 최근 공격으로 베누에 주의 3개 군의 기독교인 6천여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근 지역인 로고, 구마, 그워 웨스트 지방 정부 지역으로 대피한 상태.

김유진 기자

### 美 인권단체들, 나이지리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촉구



이스마엘 파피루스. ©Shai Halevi, Israel Antiquities Authority

교파를 초월한 종교 자유 수호단체들이 미 국무부에 나이지리아를 '종교 자유 특별 우려 국가'로 재지정하고 기독교 박해를 평가할 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미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33개 단체와 35명의 개인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바이든 행정부에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상황을 조사하고 현지 대표자들과 협의해 권고할 특사를 임명해 달라"고 했다.

이 서한은 일부 인권운동가들이 수 년간 나이지리아 중부의 농촌 기독교 지역 사회가 무슬림인 풀라니 목동들에게 공격을 받는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나왔다.

또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는 보코하람 및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존재로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온 폭력 사태에 대해, 수십 년에 걸친 농부와 목동 간 충돌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종교적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서한은 그러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가 지정과 특사 임명은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 자유 침해의 심각성과 문제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기여를 인식하는 데 중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서한은 종교 자유 수호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이 작성했으며,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국제기독교연대(ICC), 미국인본주의협회(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남침례회 윤리와종교

자유위원회(SBC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성공회박해교회네트워크(Anglican Persecuted Church Network) 등이 서명에 동참했다.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전 미국 국제종교자유대사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창설로 이어진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of 1998) 제정을 주도한 프랭크 울프 전 하원의원도 동참했다.

블링컨 장관에게 보낸 서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특별우려국가 목록에서 나이지리아를 삭제한 지 거의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이 목록에 나이지리아를 추가했었다.

CP는 "전 세계 종교자유 관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초당파 기관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나이지리아를 특별우려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판한 여러 단체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선 넬슨 ADF 국제선임고문은 CP와의 인터뷰에서 나이지리아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한 우려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가 발생하는 모든 국가에서 피해자가 법적 대리인을 보유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변호사와 옹호자들과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브라운백 전 대사 외에 민주당원인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 전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도 "미국이 나이지리아에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혜진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담임목사 오명찬.

은혜와평강교회 Eunhye and Pyeonggang Church.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담임목사 박덕근.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담임목사 최혁.

충현선교교회 Choonhyu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담임목사 민종기.

### 사우스베이 지역

가디나장로교회 Gardena Presbyterian Church.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담임목사 신태섭.

가디나선교교회 Gardena Christian Church.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담임목사 이호민.

대흥장로교회 Daehu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담임목사 김정훈.

돌로스교회 Doroos Church.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담임목사 서보현.

은혜로교회 Eunhyero Church.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담임목사 김경환.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담임목사 이종용.

토렌스조은교회 Torrance Jo Eun Church.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담임목사 김우준.

토렌스제일장로교회 Torrance Jeil Presbyterian Church.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담임목사 고창현.

### 오렌지카운티 지역

감사한인교회 Thanksgiving Church.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담임목사 구봉주.

남가주동신교회 Namgaju Dongshin Church.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담임목사 백정우.

주님의빛교회 Lord's Light Church.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담임목사 주혁로.

늘푸른선교교회 Nulpooreun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담임목사 안창훈.

다우니제일교회 Downey Jeil Church.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담임목사 김한오.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Laguna Hills United Methodist Church.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담임목사 박신웅.

베델교회 Bethel Church.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담임목사 박훈.

얼바인온누리교회 Elgin Onnuri Church.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담임목사 한기홍.

오렌지카운티인교회 Orange County In Church.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담임목사 남성수.

은혜한인교회 Eunhyehane In Church.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담임목사 임희철.

함께 걷는교회 Hanmaeul Church.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담임목사 박훈.

남가주늘사랑교회 Namgaju Neul Sarang Church.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담임목사 안상희.

갯스윌연합교회 Gattswill Church.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담임목사 이희철.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

요한계시록 7:9-17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신약성경에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철저히 회개하여 원죄와 자범죄에서 온전히 용서받은 성결의 상태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원한 신앙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된 영적 신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구원 얻은 자의 숫자에 대한 숫자풀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7:1-8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이 열거되면서 한 지파에 만 이천명씩, 십사만사천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은 유일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2는 율법에 준하는 증인을 상징하며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에 들어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며 5는 다름을 통하여 전쟁하는 것이며 6은 666으로 끝나는 사탄의 숫자를 말하고 7은 삼위 하나님의 3과 이 세상의 4가 합쳐져서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연합했을 때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해서 완전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은 하나에서 열까지 짝한 수라고하여 만수(滿數)라고 하고 12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치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자 열둘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기를 기대하셨고 가롯 유다가 죽은 후에도 맛디아를 세우심으로 다시 열두 사도의 숫자를 세우게 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기대가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구령의 성과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의 기대의 수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 숫자로는 한 지파에 만이 천명씩을 말하고 있지만 영적의미의 만이 천명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정한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사만사천명도 문자적인 숫자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령의 성과로 기대하시는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의 종려가지(월계수, Farm tree)는 올림픽때 월계관을 만드는 잎사귀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마11:9-10)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려가지를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길 양쪽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이것은 환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의 구원 얻은 숫자가 아무라도 능히 사람으로서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부활 승천

하신 예수님 앞에 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루도록 내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속하시어서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까지 상속시켜 주시려고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장로중 하나가 응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에 기록된 장로는 목자들을 통칭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1에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의 동생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인 사도요한도 요한삼서 1:1에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장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장로중 하나는 묵시적으로 예수님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목회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선포하게 하시는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체험을 주시고 회개와 신앙고백도 하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인생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뒤에도 마귀와 싸우고 죄악에 휩쓸리고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와서 복음의 비밀인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진지한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망각이 폐단이 되어 자신이 잘못한 일도 잊어버리고, 때론 일부러 잊어버리기를 위하여 까맣게 잊어버린 일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잊어버린 일까지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입으로 시인하도록 해서 애굽의 회개를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개는 성령이 시키시고 하게 하시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 회개의 진실성은 하나님 앞에 100%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이 시키는 회개를 한 사람은 다시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서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죄악에 찌든 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희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홍같은 붉은 피에 더러워진 옷을 씻었는데 흰옷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12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아직도 공중 권세잡은 마귀가 행세하고 관치는 생지옥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 소굴에 살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하얗게 입혀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와 노력이 부단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려 피 흘려서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시고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신 것은 영원한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 단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영적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 그분과의 인연을 지속하고 더욱 깊어지도록 원수 마귀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 마귀들이 우리들의 흰옷을 더럽히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신앙의 심지가 약하여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마귀에게 굴복하여 흰옷을 더럽히고 나면 히브리서 6:4-6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

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한 말씀처럼 다시는 그 인생을 회개하게 할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과의 인연이 끊어 나는 것입니다.

만약 목자가 없고 교회가 없다면 인생은 넘어지기 쉬울 수밖에 없고 천국에 가기 전에 마귀가 흰옷을 걸레처럼 더럽혀서 지옥에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교회와 목자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자가 진리정통하고 성령 충만하여 내세소망 절대적인 신앙으로 이끌어 준다면 이 시대에 참으로 복된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분단된 나라로서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현세가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더욱 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흰옷을 더럽히지 말고 믿음의 정절을 잘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15절 이하와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 세마포로 단장한 흰옷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는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육체적인 모든 고통들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신앙이 변절되면 그 흰옷은 금방 더럽혀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세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힘 있게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희어진 흰옷을 절대로 더럽히지 말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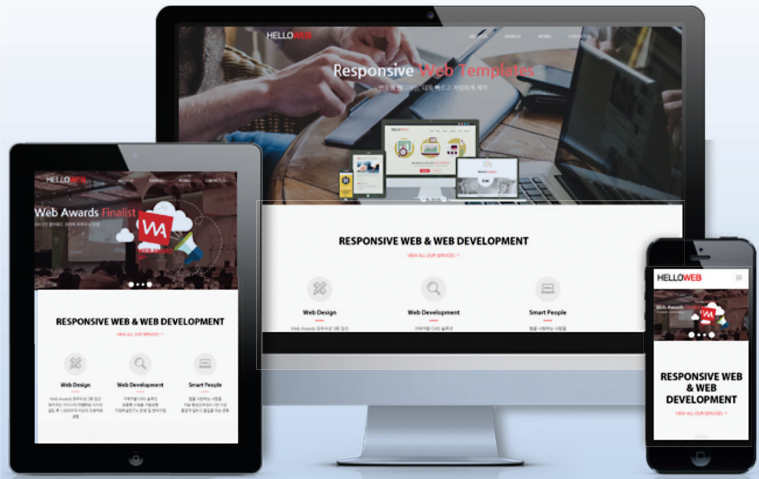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 교회 웹사이트 제작 \$300

개척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립니다.



##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되는 웹사이트)

제작비	\$300 +
기본사항	Front Page + 5pages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약함) 소개/비전/사역/설교/게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추가사항	1Page 초과시 \$50 추가 한 영 페이지 제작시 \$100 추가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약함) 소개/비전/사역/설교/게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관리비	\$20/월(호스팅) - CPanel, SSL, Mail \$30/월(관리비) - 선택가능

웹사이트는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Cpanel 및 Admin 정보 제공함 (관리내역: 비 정기적인 웹사이트 콘텐츠 수정 및 Update) 정기적인 유지관리 요청시 별도 협의

## 계약 외 서비스

월 관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웹사이트 수정은 유료임

Text 수정 : \$10 +  
이미지 작업 : \$20 +  
기타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강준민 칼럼

# 기록할 때 상처가 치유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기록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출 34:27).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함께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 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신 31:22). 노래를 짓는 것도 가사와 곡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 까닭에 배운 것을 기록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셀름 그륀은 깨어 있음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 기

록한다는 것은 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깨어 있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산만하면 배운 것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음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깨어 있어 기록한다는 것은 배우는 것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 기록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분을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교만하면 잘 배우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깊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올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만한 사람들은 슬프게도 무익하고 어리석은 언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딤후 6:4).

기록할 때 오래 기억합니다. 그냥 들은 것보다 기록하며 들을 때 더욱 오래 기억합니다. 기록하는 순간 그 기록은 우리 뇌에 새겨 집니다. 마음 판에 새겨 집니다. 기록할 때 오래 남습니다. 기록할 때 오래 보존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없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을 때 오랫동안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기록할 때 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수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것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

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 받습니다. 받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잘 받기 위해서는 좋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잘 받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히 잘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을 때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받는 목적은 받은 것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받은 목적은 전하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 다. 그것을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전수했습니다(마 28:19).

기록할 때 상처가 치유됩니다. 상처는 덮어 놓는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억누른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억지로 잊는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드러내야 치유됩니다. 기록은 상처를 드러내는 경험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글로 기록할 때 우리는 상처를 조용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상처를 조용히 바라보는

중에서 상처의 근원을 깨닫게 됩니다. 상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롬 8:28). 바로 그 순간에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 상처를 저주 아래서 십자가 아래로 옮겨 올 때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 상처를 저주 아래서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옮겨 올 때 상처가 치유됩니다. 상처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처가 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상처가 영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상처에서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될 때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받은 분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를 치유하는 상처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인류를 구원한 상처입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없이는 죄용서도 없습니다.

기록할 때 정확한 사람이 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독서는 풍부한 사람을, 담론은 용의주도한 사람을,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사람을 신뢰합니다.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을 기록하는 사람은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송재호 칼럼

# 구약과 신약의 차이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줄로 믿고 인내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은 주로 보이는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에서는 상징과 그림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를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상징하는 것의 실

체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은 물질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며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백배나 거두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물질적인 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혼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 주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그 축복은 바로 천국에 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팔복의 말씀이 신약 복의 핵심인데 그것은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은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신성한 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목적으로 세운 건축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서 특별한 곳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하셨고(신 12:11) 오직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신 12:13-14). 바로 그곳이 구약에서의 성전입니다.

무엇보다 성전과 관련하여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보이지 않은 성전을 말합니다.

AD 1세기에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양 한 마리씩 제물로 드렸고, 안식일에는 두 마리씩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사,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수전절, 부림절, 대속죄일에는 많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참고: 날, 달, 절기를 성취하신 예수님, 갈 4:10-11). 무엇보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유월절, 2:13; 11:55; 명절, 5:1; 초막절

7:10; 수전절, 10:22), 요한은 명절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둘 성전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실제 안에서의 예배’를 제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요 4:23).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같은 주제이지만 다른 중요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누구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혼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김한요 칼럼

틈새를 노려라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살인적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바쁘다는 말은 할 일이 많다는 것이고, 주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일과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에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것은 사역 순서상 제일 위에 있기에 바쁘다고 성도님들 만나는 스케줄을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일로 요청이 오는 스케줄을 컨트롤 하지 않고 정신줄을 놓으면 정말 정신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은 친한 목회자와 함께 이야기 하다가 '살인적 스케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한 자리에서 식사할 시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팅이 줄을 서

있고, 참여해야 할 컨퍼런스가 한 주 걸러 있고, 거기에 본 교회의 새벽기도부터 설교할 일이 일주일에 적어도 5회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뛰어다니는 목사에게 제가 해 줄 수 있는 충고는 "건강 지켜라"였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부르는 곳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속된 표현 같지만 '메뚜기도 한 철'입니다. 부를 때 열심히 달려갈 수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바쁨은 빈틈이 없이 연달아 있는 스케줄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틈이 있어야 합니다. 스케줄 사이에 틈을 두어야 '여유'가 생깁니다. 그 틈은 바쁜 스케줄 중에 뒤돌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면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그 풍성함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끌어 올리는 힘은 쉽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성입니다. 특히 설교는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설교 내용은 잘 주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설교의 구성과 전달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말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청중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바쁜 그 창의성이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억눌린 삶에 돌파구가 필요할 때, 살인적 스케줄 속에서 틈새를 노리십시오. 그리고, 그 틈을 확장해서 창의적 구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기고

유대인 디아스포라 역이민 정책 -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사명 (3)



김종덕 목사 TIS(Trinity In Society) 연구소장

2차 세계 대전 이후 한민족과 유대인은 각기 독립국가를 이룬다. 한민족은 성경 위에 나라를 건국했고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재건했다. 두 나라 건국은 정치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한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행1:6)" 이 '때'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다.

벨론으로 이주하게 된다. 이때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주한다. 세번째 유대인의 흠어집은 기원전 597년 예루살렘2차 침공에서 여호야긴왕이 항복하면서 이루어진다. 그 후 기원전586년 바벨론의 제3차 침공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이때 네번째로 유대인들이 흠어지게 된다. (대하36:20) 이들은 바벨론제국 곳곳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게 허락받았다. 이것이 바벨론과 중동 지역 중심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일부의 유대인들은 이집트로 도망쳐 나일 삼각주에 정착한다. 따라서 597년 이후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두 그룹이었다. 하나는 바빌론과 중동지역 디아스포라, 또 다른 하나는 이집트를 중심으로한 디아스포라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키루스(고레스)는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바벨론에 남아 있기로 결정한다. 북이집트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집트 엘리판틴(Elephantine)이란 섬에서 용병으로 살기도 했다. 초기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종교와 그들의 사회적 관습을 유지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다. 페르시아인과 유대인 모두 자신의 법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헬레니즘 제국을 거치면서 예루살렘 근교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마카베오 반란을 일으켜 잠시 하스몬 왕조를 세운다. 하스몬 왕조의 패권정책으로 모압, 암몬, 에돔, 갈릴리인들이 반강제로 유대교로 개종하게 된다. 또한 그리스계 이주민들도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에 매력을 느껴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후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 합병되어 예수그리스도의 시기에는 로마 보호령 상태였다. 유대는 자치권을 인정받아 유대인 왕을 세울 수 있었고 종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무역규제, 세

수극대화 등 로마총독의 폭정으로 66년 '유대독립전쟁'을 일으킨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디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 함락되고, 유대인들은 로마제국 전역으로 흠어지게 된다.

1945년 9월2일 세계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고, 1948년5월14일 유대인은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을 건국한다. 현재,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유대인 역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7년12월16일, 45대 미국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70여년의 대중동정책을 뒤집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다.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완전한 나라 회복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대 사명을 주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 이 말씀은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인 사회로' 나가라는 복음전파사명이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지 않고 최적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 바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다. '디아스포라'는 포괄적으로 한가지 특징을 갖는다.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다른 두 지역 안에서 하나님나라 가치를 세상나라에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들은 '복음의 교두보'다.

디아스포라 바울은 히브리인으로 로마시민권을 가졌다. 바울은 헤브라이즘(Hebraism)과 헬레니즘(Hellenism) 철학에 능통했다. 바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이중언어자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 절기, 제사문화 등을 정확히 이해해 이방인들에게 간단 명료한 개념으로 헬라어를 통해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었다. 동서양을 연결할 수 있었던 바울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물결은 소아시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이방

인 사회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태평양을 넘어 한국으로 흘러와 멈춰섰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 전해진 복음은 평양성에 성령의 부흥을 일으켰다. 하지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황무하게 되었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영적부흥의 흔적을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3대 세습 독재정권이 총칼로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복음의 문을 막아하고 있다.

내년이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한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황무함을 바라보며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년 만에 그치리라 (단9:2)"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알리며 하나님 앞에 독대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다니엘처럼,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일제 강점기 중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일왕(日本王)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라고 인정하며 배교했던 우상숭배의 죄악을 우리들의 죄로 아뢰며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한다. 회개하는 한민족에게 기쁨의 희년(쥬빌리)을 주시리라.

디아스포라 회개의 기도는 한민족 복음통일을 앞당기며 동양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민족으로 하여금 세계선교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아직 복음전파의 후반전이 남아있다. "한반도에서 유라시아를 지나 땅끝 예루살렘까지". 필자는 1세대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고난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 먼저 보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바울과 같은 '한민족 디아스포라' 2세, 3세가 준비되고 있음을 확신한다.

1 유대는 기원후 63년에 로마제국의 보호령이 된다.(실체 연도는 역산상의 오류로 조금 차이가 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Advertisement for Alex Kim Trading, featuring used cars and contact information: www.alexkimtrading.com, 323.737.5900, 213.703.7077.

Advertisement for hair salon services, featuring a list of services and contact info: (213)392-2323.

Advertisement for Jun Lee Insurance, offering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nd AL Flexible Life Insurance, with a detailed rate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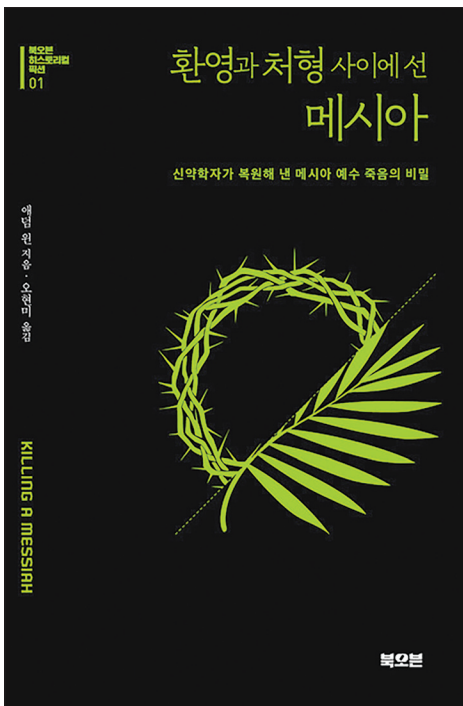
Advertisement for Junimmedia, offering various content creation services, with contact info: 323.265.0244.

Advertisement for Inex Auto Collision Center, offering car repair services and contact info: 213.383.1230.

Advertisement for Cooking Mom, offering various food services, with contact info: 213.378.8530/213.674.7476.

[이성구의 기독교 문학을 만나다] 기독교 문학의 지향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스릴러 형식으로 재구성



환영과 처형 사이엔 선 메시아

애덤 원 | 오현미 역  
북오븐 | 344쪽

사람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는  
왜 일주일 만에  
처형당했나?

기독교 소설, 나아가 기독교 문학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반적인 문학은 '재미'에 초점을 둡니다. 재미를 통해 소설의 본질인 이야기를 이해시키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문학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경을 쉽게 접근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발이 성경이고 끝이 성경입니다. 소설이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형식을 빌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일상의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기독교 소설, 기독교 문학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

니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소설은 '교훈'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훈이라면, 훈시처럼 딱딱하고 고루해 보이고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잘 만든 기독교 소설은 대놓고 '이제부터 성경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며 쓰여진 게 아니라, 재미있게 잘 읽히게 하면서 뒤끝으로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소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시점부터 죽고 나서까지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스릴러 형식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부류의 위치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로마 총독 빌라도, 도성의 평화를 지키려는 제사장 엘리아살과 그의 아버지 대제사장 가야바, 로마를 봉기시키려는 저항군 지도자 유다. 세 위치에서 느닷없이 등장한 예수님이라는 존재로 인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을 조연으로 밀어내면서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방식을 썼다는 점입니다. 소설은 예수님보다는 이 세 위치의 관계에 더 집중합니다. 갈등을 조성하고 키우는 건 세 위치의 가교 역할을 하는 밀정입니다. 로마는 예루살렘의 상황과 반목하려는 세력을 없애기 위해 밀정을 세우고, 그 중심에 가장 인물인 갈렘을 활용합니다. 갈렘이 가지는 갈등과 정보로 이 소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다 읽고 나면 이 소설의 제목은 <환영과 처형 사이엔 선 메시아>가 아니라 <밀정>이나 <갈렘>으로 해도 될 만큼, 비중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밀정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더 읽는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예수님보다는 밀정의 행각에 비중을 두므로,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으면서도 처형당했어야 했는지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음(예수님의 처형)에도 서스펜스를 차용하여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읽는 속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매력적인 책입니다.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우선은 신약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대적 용어들을 쓴다는 점입니다. "가야바는 빌라도가 체스판에 놓을 가장 소중한 말이 되어야 했다(171쪽)"라든지, 갈렘이 은밀하게 대화나눌 시간을 일경(一更,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라는 옛 시간대를 사용하고는(90쪽) 수시로 몇 시간 뒤 몇 미터 등과 같은 현대적인 단위를 사용한

로마 총독 빌라도,  
대제사장 가야바,  
저항군 유다

세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얼키고설키는 이해관계

예수님 조연으로 밀어내  
오히려 부각시키는 방식  
가상 인물인 '밀정' 갈렘의  
갈등과 정보로 긴장감

다든지, "상대방의 프리스타일 동작 앞에서 그 스텝은 바보같이 보였다(204쪽)" 하는 식으로 현대적인 용어와 격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 당시에는 이름 사용에 제한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작가의 작명 실력이 없었던 건지, 등장하는 가상 인물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시대 인물과 같이 혼돈과 의문을 줍니다.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도 빌라도가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그 공을 제사장에게 넘기는 부분의 설득력이 약하고,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두 명의 강도에 대한 다른 해석은 이해하기 쉽지 않으면서 논란의 소지를 줍니다. 작가도 이를 의식해서 인지 책 말미에 '저

자의 말'과 '예수의 죽음과 반유대주의의 역사'라는 장을 넣어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썼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만 하다 보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아쉬운 점을 하나 더 쓰자면 가장 끝에 가서는 '생각과 토론을 위한 질문'을 넣어 이 소설에 대해 되짚어 보도록 했습니다. 세상 어느 소설에서 이런 장(章)을 넣나요? 에필로그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간단히 알리는 선에 그치는 경우는 많지만, 내용을 강제로 복기하는 질문을 넣는 소설은 없습니다. 책에 대한 감상은 온전히 독자의 몫으로 두죠. 이 책은 소설이지, 교재가 아닙니다. 질문 또한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신학자가 쓴, 기독교 출판사가 낸 소설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이 소설은 당시의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찾아내어 작가의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리게 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 것도 좋지만, 로마와 제사장과 저항군이라는 세 위치의 관점에서 읽는다면 재미가 더 배가될 겁니다. 나아가 세 가지 입장에서 본 예수님을 읽으면,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 심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분명 흥미로운 책입니다. 성경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을 딱딱한 신학서나 강해서가 아니라 신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소설을 읽음으로써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기독교 소설은 꾸준히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과 반대로 생각합니다. 소설이 가지는 재미에 교훈을 붙여야 하는 것이 기독교 소설이 아니라, 딱딱한 교훈에 입힌 재미의 소설로 인해 성경이 더 무거움을 가지고 모든 이들이 성경을 접근하는데 조금은 용이하게 된다면, 기독교 소설로 그 역할은 다한 것이고 필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소설은 읽을 만한 책입니다. ■ 이성구(서평가)

[9월, 작가들의 말말말④]

◆김민정 -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년기도 100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나 스스로가 나를 보호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더라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



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온 날이 험겨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강렬했음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이 즐거웠다면 주님의 은혜가 넘쳤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젊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실수를 더 적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의 젊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이에 집착하여 소망 없어 하는 마음을 내다버립니다. 내 삶의 좋은 일들이 젊은 날에

만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중년은 중점이 아니라 정류장임을 알게 하소서. 너무 빨리 종점이라 여기며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이제는 다른 버스를 갈아타고 새로운 길로 가야 하는 기점일 뿐입니다. ◆강신욱 - 대화로 푸는 성경: 창세기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

겠다고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기도만 하며 육 개월을 보냈다.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육 개월이 지나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났다. 기적 같은 만남이었고, 그 기적은 지속됐다. 그들에게 거의 일 년간 복음을 전하며, 함께 창세기를 공부하게 될 줄 몰랐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배우는 시

간이었다. 이 책은 성경공부 교재가 아니며, 창세기의 참고서나 요약서도 아니다. 나 자신이 복음에 다시 눈뜨고 마음이 뜨거워진 고백록이며, 기독교와 성경을 주제로 비신자와 대화한 소통의 기록이자, 초자연적인 사건은 없지만 내겐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 기록이다. ■ 이성구(서평가)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Tel: 213-739-1022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 (1)

# <수리남>까지... 넷플릭스, 반기독교에 집착하는 이유

대중문화에 대한 넷플릭스 철학, 진보주의 표방 다원주의 아닌 서구 중심·자문화 중심적 지배욕 넷플릭스, 진정 다원주의 가치관 추구 원한다면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 평등하게 평가해야

◆드라마 속 기독교 코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주력하는 <수리남>

<수리남(영어명 Narcos-saints)>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실제 남미 수리남에서 마약왕으로 군림했던 범죄자 조봉행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이다.

<나르코스>나 <나르코스: 멕시코>처럼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남미 마약 카르텔을 소재로 삼았고, 화려한 캐스팅(하정우, 황정민, 박해수, 조우진 등)과 상대적으로 치밀한 노르드 각본에 힘입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드라마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우선 수리남에서 기독교 계열 사이비 집단을 지도하며 마약왕으로 군림하는 전요환(조봉행의 작중 가명, 황정민 분), 그리고 선량한 가장으로서 수리남에서 사업을 하다 조봉행에 속아 큰 피해를 본 강인구(실제 조봉행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의 작중 가명, 하정우 분), 두 캐릭터가 전체 서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 드라마는 서사 곳곳에 기독교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주인공 전요환이 기독교 계열 사이비 교주이고, 강인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박해진(추자현 분)을 아내로 맞이한 덕에 <수리남>의 서사 전반에 기독교적 요소들이 드러난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드라마의 표현 태도는 일단 양면적이다. 박해진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강인구와 결혼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강인구와의 결혼 생활을 헌신적인 태도로 꾸밈게 이어간다. 즉 박해진의 기독교 신앙은 강인구가 성실하고 선량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계기가 자 구간이 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수리남> 속 반기독교적 메시지는 넷플릭스의 근대적 진보이념에 입각한 문화권력 쟁취 욕망을 보여준다.

반면 기독교 신앙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소개되는 장면도 계속 등장한다. 우선 박해진이 수리남에 있는 남편 강인구에게 주일에 배 인증을 요구해, 강인구는 전요환의 사이비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이로써 아내의 신앙이 남편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하나의 요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 마약 카르텔 두목으로서 천박하고 잔혹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전요환이 말 끝마다 "할렐루야"나 "하나님 은혜"를 운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신도들을 마약에 중독시켜 노예처럼 부려먹는 장면들에서 드라마 <수리남>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리남>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중 어느 편이 더 크게 드러나는지 묻는다면, 시청자들 모두가 후자라고 답변할 것이다. 박해진의 신앙은 짧고 잔잔하게 묘사되는 반면, 전요환의 사이비 목사 노릇과 그에 결부된 악질적인 행위들은 서사가 이어지는 내내 강렬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사실 작중 전요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수리남 마약왕 조봉행은 실제 현실에서 결코 사이비 목사나 교주 노릇을 한 적이 없다. 게다가 현실에서의 조봉행은 대단히 치밀하고 신중한 성격이어서, 자신이 마약으로 돈을 벌어들인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기 위해 크게 사치를 부리지 않고 그렇게 크지 않은 집에서 눈에 띄지 않게 생활했다.

반면 작중 전요환은 뜬금없이 사이비 목사이자 교주 노릇을 하는 데다 대저택에 사병을 거느리고 수시로 향락을 즐긴다.

즉 전요환에 대한 캐릭터 묘사는 현실과 전혀 다른 설정들로 점철되어 있다. 그에 비해 강인구에 대한 묘사는 실제 현실에서 전요환 검거에 도움을 준 인물의 활약과 별반 차이가 없는 편이다.

즉 전요환이 목사 노릇을 하면서 저열하고 악독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극적 설정은 순전히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감을 표하기 위해 가미된 각색에 불과한 것이다.

◆드라마 속 반기독교 메시지: 모더니즘에 입각한 진보 이념이 지탄하는 기독교 신앙

이처럼 <수리남>은 원래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기독교 코드를 집어넣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수리남>의 제작사가 넷플릭스라는



한국인으로서 남미 수리남에서 마약왕으로 활동했던 범죄자 조봉행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수리남>.

점에서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넷플릭스에서 투자하고 제작한 드라마 가운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나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 <두 교황>이 가톨릭의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를 멋지게 그려내고 있지만, 이 영화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톨릭 교회의 신앙 전통에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와 정치적 올바름 사상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가톨릭 전통 신앙은 오히려 인권신장과 평등추구, 그리고 혐오방지에 방해되는 요소,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요소로 소개되고 있다.

넷플릭스가 이처럼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부정적이고 반감 어린 태도를 보이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해당 매체가 모더니즘에 입각한 진보 이념을 콘텐츠 발굴 및 투자 철학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중문화계 인사들 대다수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 진보좌파 이념을 추종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은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양분 삼아 개화한다. 반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념이나 사상, 특히 종교적 믿음은 문화예술의 표현 범위를 일정한 틀 안에 가두려 한다.

이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때로는 거의 맹목적이라고 할만큼 진보 이념에 천착한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이나 신앙이 자신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표현의 열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더니즘은 대중문화계 인사들의 이런 진보주의적 성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사상적 지지대가 되어준다. 서구에서 모더니즘을 받아들이는 이들, 즉 근대 계몽주의자들은 세계를 인식하고 삶을 꾸려나가는 방식에 있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주로 기대었던 선조들을 마땅치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근대 모더니즘의 창시자들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주어져 있던 학문과 예술의 영역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 그리고 감정으로 지배하기 원했고,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거나 배척하거나 변경하는 데 열심을 냈다. 이들은 학문과 예술을 지배하는 권력을 원했고, 실제로 그것을 쟁취하기에 이르렀다.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넷플릭스의 철학은 이 모더니즘에 바탕을 둔 진보주의 이념을 표방한다. 이 이념이 정치적 올바름(PC)이라는 탈을 쓰고 있기에 마치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의 한 지류인 것처럼 비치지만, 실상 넷플릭스를 비롯한 최근 뉴미디어 업체들 대부분은 진정한 다원주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여전히 서구 중심적이고 자문화중심적 지배욕을 담은 모더니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서구 계몽주의와 모더니즘이 궁극적으로 반기독교 성향으로 흘러가는 반면,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는 아예 무종교 및 종교 부정의 세태를 수긍하고 권고한다.

반종교와 무종교는 그 성격이 엄연히 구별된다. 만일 넷플릭스가 진정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추구한다면 유독 기독교에만 가혹한 편파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해 현실적 삶을 기반으로 평등하게 평가하는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과 마찬가지로 <수리남>에서도 재차 확인되는 반기독교적 태도는 아직 넷플릭스와 그들과 함께 일하는 감독들이 현대 다원주의 사고에 조차 온전히 이르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근대적 사고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나 다름 없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40년 전통의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let's go 이스라엘 성지순례

**\$2,800** (전일정 항공포함)

**예루살렘 7박8일**

2월 20일 출발

베들레헴과 감람산과 갈릴리와 사해  
다윗의 피신처, 유대광야와 맛사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문의 : (213) 653-6489, (213) 819-5132  
주관: 세기여행사, 파이오니아 여행사

\*상기 상품의 일정과 비용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찬양사역자 청빙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LA 동부 지역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에서 찬양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지원 자격
  1. 예배 찬양 인도에 대한 소명과 경험이 있는 분
  2. 성경적 가치관과 건강한 기독교 교리에 동의 하는 분
- 사역 내용
  1. 각 예배 찬양 인도 및 찬양팀 훈련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신앙 간증서
  3. 추천서
  4. 찬양 인도 동영상
- 제출하실 곳
 

beautifulchurch@hotmail.com
- 교회 주소: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 교회 홈페이지: www.beautifulchurch.org

아름다운교회  
Beautiful Church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